

속절없이 흔들려 무너지는 장벽



이웅배 (교수)

조각가,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요즘 나는 8월 중순에 있을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작가는 일상의 일과 마찬가지로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정을 정해 놓고 움직인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이긴 하지만 완성작을 전시장에 내놓기 전에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인쇄물과 홍보용 촬영을 하고 평론가의 글을 받는 등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개인전은 단체전보다는 비교적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이 된다. 그런데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이니 이렇게 혼자든 여럿이든 좋은 전시를 위해서 개막일보다 훨씬 전에 작품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으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예전 같으면 전시 두 달 남짓 남은 이즈음이면 완성작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 생각이 많다.

물론 나는 전시를 준비할 때 작품을 좀 몰아서 만드는 편이다. 종종 작품 제작을 위한 틈 들이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대개 아이디어 스케치와 소품 만들어보기, 새로운 기법이나 재료를 찾아 적용하기 등이 확정되면 전시장의 조건 특히 전시 공간과 작품과의 관계 등을 점검한 후 시간과 힘을 모아 단기간에 집중해서 제작에 들어간다. 작품을 만드는 습관도 작가마다 각각인데 예를 들어 같은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 나의 아내는 나와 많이 다르다. 물론 작가마다 다른 이 습성을 놓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말하긴 어렵다. 그녀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작업실로 나가 짜놓은 일정에 맞춰 꾸준하게 작품을 제작하는 개미형 작가다. 나는 꾸준하고 지속적이기 보다 몰아서 하는 편이라 꾸준하고 성실한 아내를 부러워하는 편이다. 이런 면에서 나는 우스갯소리로 나를 배짱이

형 혹은 팝콘형 작가로 부른다. 이유는 버터와 소금에 버무려진 옥수수 알이 열에 가열되어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갑자기 튀겨지며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아서다.

그런데 전시를 위해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지금 나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으니 이러는 데는 가법지 않은 이유가 있다. 최근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여러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소용돌이치는 역사적인 변화들과 신앙의 관계를 찾는데 목하 탐색 중이다. 역사와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 찾기는 늘 그렇듯 쉽지 않아 전전긍긍하게 한다. 보통 전시를

앞둔 이즈음이면 정확한 아이디어 스케치는 물론 이요 대략의 모형과 그에 합당한 재료와 기법을 가지고 작품 제작에 진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이유가 나를 그렇지 못하게 한다. 이미 어느 정도 제작을 마친 작품들을 뒤로 물리는 무리수를 선택한 것이다.

나의 작품을 스스로 구분 지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로 1996년 첫 번째 개인전 전후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런 구분의 근간에는 우리나라의 분단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나의 결연 분단 때문에 빨리 보이는 고향을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하는 팔십 대 중반의 실향민, 고통과 슬픔을 지



고난의 산 II, 165 x 70 x 130cm, 철근과 철조망, 1995년

닌 아버지가 계신다. 실로 나의 부모님에겐 황당한 사연이 있다. 우리 땅의 분단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종결되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시작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이전에 아버지의 고향은 38선 이남에 어머니는 이북이었다. 그런데 3년간의 전쟁 후 휴전선이 대신 그려지면서 아버지의 고향은 북이 되었고 어머니의 고향은 남쪽이 되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분단의 선이 서쪽에선 내려오고 반대로 동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바람에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 어머니는 이남 사람이 된 것이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당시 열여섯 살의 나이로 대학에 들어간 큰아버지와 함께 황해도 연안에서 서울로 나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전쟁은 아버지가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아버지를 영영 만날 수 없게 만들었다. 나의 아버지는 사춘기를 전쟁과 함께 보냈다. 청소년기를 배고픔과 두려움과 전쟁의 폭력과 함께 지낸 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와 생이별의 슬픔을 가진 이북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접경시대에서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휴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구축한 냉전의 인한 이 기구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1996년 나의 첫 번째 개인전에 배어 있다. 특히 군 복무를 위해 관측장교로 산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 산에 걸쳐져 있는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나타내고 싶었다. 그것이 <고난의 산> 시리즈인데 철근으로 불쑥 솟아 오른 산의 형태를 만들고 그 외형을 철조망으로 반복적으로 둘러서 분단의 문제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신앙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읽어내고 싶었다. 그런데 무슨 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해안도 없어서

무작정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던 골고다를 이 산에 대입시켰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은 밭도 끝도 없이 고난의 삼십대의 나사렛 청년이 오른 산을 철책으로 두른 나의 산에 끌어다 붙인 것이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이 시대를 해석할 답이 없고 내가 하소연할 이는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좀 흥측해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가시철조망으로 칭칭 감긴 이 산은 날카롭고 위험하여 보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물론이요 곁에 가기도 주저된다. 이런 안쓰러움과 부담감 때문에 관람객들 중에 일부는 왜 이렇게 위험한 작품을 만드냐고 통명스럽게 물어보는 이도 있었다. 하여간 나는 당시 할 수 있었던 일이 이것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산의 꼭대기만은 더 이상 철조망을 두르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으면 하여 그냥 놔뒀다. 그리고 20년이 더 지났다.

나는 새 작품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와 더 많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싶다. 절대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던 과거의 분단과 대립의 장벽이 마치 예측불능의 강력한 지진에 허술한 건물이 속절없이 흔들려 무너지듯 옛 것은 이렇게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기대를. 그러므로 내 어설픈 예술적 재능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내 작품의 변화를 검토 중이다. 



고난의 산 I, 105 x 115 x 60cm, 철근과 철조망, 1995년